

##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 비교 연구

김 찬 주\* · 노 미 경\*\*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겸임교수\*\*

### Comparison of Women's Denim Fashion between Seoul and Beijing

Chanju Kim\* · Mikyung Ro\*\*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Lecture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2005. 8. 29 투고)

#### ABSTRACT

Denim has been one of the most favored clothing item among young people regardless of regional difference. This study compared the styling of women's denim fashion in two Asian metro-cities, Seoul and Beijing, in order to understand how differ the fashion taste of both cities. Data was collected by taking photos of young women who wear denim clothing at the main streets of downtowns or famous shopping areas of both cities from the July of 2004 till the April of 2005. A total of 524 photos(Seoul 242, and Beijing 282) were put into conten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nim styling between two cities in terms of the most widely worn denim items and the coordinate items, and the favored colors, silhouette, details of denim pants and the coordinate items. In Seoul, women favored denim look with little detail, fitted silhouette, and in more formal image. A few denim styles prevailed in each season which reflect current denim fashion trends. Meanwhile a wide variety of denim styles were found at Beijing without dominant denim trends, which means Beijing women put more emphasis on personal expression of their fashion taste instead of just following fashion trends.

Key words: denim fashion(데님패션), street fashion(스트리트패션), styling(스타일링), coordination (코디네이션)

## I. 서론

세계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동질화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각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정서를 반영하는 지역화 현상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패션은 기술과 생산시스템의 지원으로 가시화되는 대표적인 물질문화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 취향, 개성, 사회구조 등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계절에 따라 새로운 패션이 시작되면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같은 스타일의 패션이라 해도 각 도시의 문화적 풍토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 도시만의 개성적인 스타일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 고유의 개성적인 스타일은 특정 신분의 소수 사람들을 위한 하이패션 보다는 거리에서 발견되는 일반 대중들의 차림새인 스트리트 패션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스트리트 패션을 조사해보면 젊은이들의 경우 데넴의류를 입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인 차림이다. 19세기 말 미국 서부의 광부들과 카우보이들의 작업복에서 시작된 데넴의류는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대표적인 캐주얼 의류로서 젊음, 활동성, 기능성을 상징해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데넴의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복장으로 구입빈도와 착용빈도가 높고,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도가 강하다. 특히 최근 데넴은 기존의 캐주얼 이미지의외에도 패션 트렌드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적합한 폭넓은 패션품목으로 간주되어 영마켓의 필수품목이 되고 있다.

데넴의류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 복장의 유행은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1980년대 경제개방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앞으로의 시장가치도 매우 커서 세계의 유명 패션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패션기업들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고 의복수요도 많은 젊은이들 대상의 캐주얼 의류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 젊은이들

의 캐주얼 패션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 시장진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보편적 차림인 데넴패션의 스타일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데넴의류가 사계절 상품이기는 하나 계절에 따라 형태나 실루엣, 색상이 다르고,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계절별 디자인 요소와 코디네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대표적 글로벌 패션아이템인 데넴의류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착용되고 있는지를 디자인 관점에서 비교조사한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데넴패션에 대하여 비교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데넴의류 상품기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에 이르는 1년동안 아시아의 두 중심도시인 서울과 북경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데넴의류를 입는 모습을 자료수집하여 품목과 디자인요소,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절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계절별로 많이 입는 데넴의류 품목은 무엇인가?
- 2) 계절별로 데넴하의와 함께 코디네이션하는 상의의 품목은 무엇인가?
- 3) 계절별로 선호하는 데넴하의의 디자인요소(색채, 실루엣, 디테일)는 무엇인가?
- 4) 계절별로 선호하는 코디네이션 상의의 디자인요소(색채, 실루엣, 디테일)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데넴과 데넴패션의 개념

데넴은 경사와 위사가 같은 색으로 된 능직의 튼튼한 면직물로서 위사방향에는 염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금 옅은 색을 사용하고 경사방향에는 푸른색, 갈색, 회색 등의 실을 사용해 짜여진 직물을 말한다<sup>1)</sup>. 데넴(Denim)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즈(Jeans)라는 용어는 1567년경 이탈리아의 제노아(Genoa)지방의 직물을 가리키는 진즈(genes)에서 유래하였으며, 주로 색상을 푸른색(Indigo Blue)으

로 염색을 하므로 블루진(Blue Jean)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데님(또는 진즈)으로 만들어진 의복품목들을 일컬을 때는 데님의류라고 하였으며, 데님을 전부 또는 하나 이상 착용하여 다른 품목들과 조합하여 입은 차림을 의미할 때는 코디네이션에 의미를 두어 데님패션이라 칭하였다.

## 2. 데님패션의 시대적 변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골드러시는 금광 채굴꾼들에게 질기고 값싸면서 튼튼한 작업복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1853년에 샌 프란시스코에서 이주해온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는 천막이나 텐트용 직물을 이용하여 오버롤 진즈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sup>2)</sup>. 이 최초의 진은 당시 가장 강한 소재인 트윌 조직의 블루데님이 사용 되었다가,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데님에 인디고 블루가 염색된 직물이 사용 되었다<sup>3)</sup>.

1920년대부터 데님 패션은 산타 페(Santa Fe)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예술가 집단에 의해 일종의 반 패션(anti fashion)으로 유행하였다<sup>4)</sup>.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데님은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되었으며, 남녀 대학생들은 노동자들과 일치단결의 표시로 데님을 착용했다. 1950년대부터 하위문화가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블루진을 애용했다고, 1960년대에 청년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데님 패션은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모즈(mods), 히피(hippies), 펑크(punks) 등의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비롯된 빛바랜 진즈, 찢은 진을 통한 파괴적인 표현과 함께 최근에는 허리를 드러내며 입는 스타일의 힙스터 진즈(Hipster Jeans) 등의 스타일이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었다<sup>5)</sup>. 이와같은 데님의 변천은 기존 미의식에 대한 부정을 통해 주류 패션에 대항하는 스트리트 패션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청년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데님 패션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데님 패션은 젊은이들 중심에서 중년층, 상류층들의 레저 웨어 등으로 그 폭이 넓고 다양해졌으며, 스타일도 벨보텀(Bell-Bottom)

스타일, 스트레이트(Straight)스타일, 배기팬츠(Baggy Pants) 스타일 등 더욱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노동자 의복이자, 젊은이들의 저항의 상징인 데님 패션이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여 데님패션의 고급화가 이어졌다<sup>6)</sup>. 1980년대 초에는 다양한 스포츠 캐주얼 웨어의 유행으로 데님의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스톤 워싱(stone washing), 마블기법(marble washing) 등 다양한 가공방법을 활용한 데님이 등장했다. 여성들은 몸에 잘 맞고, 발목길이의 타이트 핏(tight fit) 스타일이, 남성들은 바짓단을 접어 입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 데님 패션은 그 동안 다양한 계층에서 캐주얼로 자리 잡은 데에서 다시 청년,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등장하였다. 그 예로 힙합(hip hop)문화를 즐기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2~3치수 오버 사이즈(over size)의 데님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너바나(Nirvana)를 중심으로 한 그런지(Grungy)의 영향으로 매우 낡은 데님 패션이 등장하였다.

## 3. 국내 데님패션의 현재

2000년대에 들어와서 데님은 패션 트렌드와 접목하면서 전성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우선 청바지라는 제품자체의 영역이 넓어졌다. 그동안 데님은 주로 캐주얼 이미지로 한정되어왔으나 베이직(basic), 섹시(sexy), 캐릭터(character) 등 연출하는 스타일에 따라 여러 이미지로 변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국내외 스타들의 영향이 크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니퍼 로페즈 등 외국스타들은 물론 국내의 여성 스타들도 콘서트 또는 파티, 시사회 등에 청바지를 입고 등장하면서 청바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들 유명스타들이 많이 입는 형태로서 밀위가 짧아 허리가 노출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면서도 섹시해 보이는, 다양한 브랜드의 고급 청바지들이 국내에 들어와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국내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 4. 중국 패션의 현재

중국의 의류시장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9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인 성숙기로 들어서 매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지역과 계층별 소득과 소비구조 차이가 극심하나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소비의 패션화, 고급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7)</sup>. 특히 중국의 소비성향을 주도하며 첨단 패션을 추구하는 신흥 부유층 소비자들은 고소득 자본주의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어 의류수입이 증가하고 있다<sup>8)</sup>.

중국의 소비자들은 대중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를 통해 상품과 생활 및 문화정보를 흡수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외래문화가 들어오고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이 자유로워진 현재 중국의 의류소비 형태는 보다 다양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은 과거의 보수적이고 실용적인 단조로운 스타일 위주로 전개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진 대중들에 의해 개성적으로 창조되고 있다<sup>9)</sup>. 특히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캐주얼화가 패션의 중심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연령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빠른 영 캐주얼(young casual) 시장의 타겟이며, '청춘세대로 불리는 2억의 인구분포를 갖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젊은이들의 사고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중국 패션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sup>10)</sup>. 이들 중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수준의 발전과 개혁개방의 심화로 경제, 사회생활과 전통 관념의 변화를 이루는 주체세력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의복욕구 또한 변화하여 집단의 정체감 표현 대신 개인의 만족이나 개성표현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5. 데님에 관한 연구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데님 관련 논문들은 주로 소재 특성에 관한 연구들<sup>11)12)13)</sup>, 문화사적, 미학적

특성 연구들<sup>14)15)</sup>, 청바지 광고의 표현양식<sup>16)17)</sup> 등과 18)19)20)21) 등의 데님웨어 착용 태도 및 구매행동에 관련된 논문들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 청바지에 대한 이미지는 남녀 모두 남성답다>섹시하다>유니섹스하다>활동적이다>젊다>편안하다의 순서로 보았고, 착용하는 청바지의 형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일자형 바지를 가장 많이 입고 있으나,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이 통이 넓은 배기형을, 그리고 여학생은 벨보텀을 많이 착용하였다.<sup>22)</sup> 청바지 구입 시 선택요인은 남녀 모두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다'와 '유행에 따라 선택 한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sup>23)</sup>, 대학생의 청바지 소용성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청바지를 구매할 때 제품의 디자인과 개성표현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4)</sup>. 진 의류 광고에 나타난 미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진 의류는 1990년 후반에 이르러 기존의 '젊음', '활동성' 외에 '섹시함'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성표현'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sup>25)</sup>. 특히 최근 페미니즘이 패션의 메가 트렌드화 하면서 데님패션도 에로틱한 표현, 탈고정적 성 표현, 해체적 표현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sup>26)</sup>.

이들을 종합하면 데님패션이 특정시대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에서 점차 개인화, 개성화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바지 구매 시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개성표현과 유행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은 데님웨어가 패션화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Ⅲ. 연구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2004년 5월에서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 서울과 북경의 중심거리에서 발견되는 데님패션을 사진 촬영하였다. 촬영장소는 20대 젊은 이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번화가 거리를 중심으로 선택되었고, 서울은 명동, 압구정, 강남역 부근이, 북경은 동방신천지백화점 앞 왕후징 거리, 시단백화점 앞거리가 선정되었다. 각 지역은 주위 환경과 모이는 사람의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쇼핑과 오락, 문화의 거리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도시 젊은이들의 데님패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촬영 시기는 연구 인원의 한계로 인해 각 계절별로 중간 달(7월, 10월, 1월, 4월)의 첫째와 셋째 주말에 촬영하였으며 전신착장 모습만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서울은 242매, 북경은 282매, 모두 524매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를 기준으로 계절별 데님의 류 품목별 착용빈도와 코디네이션하는 상의 품목별 착용빈도,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코디네이션 상의 디자인 요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고,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유목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데님하의의 형태분류를 위해 실루엣은 전체적인 맞음새를 기준으로 엉덩이와 다리에 꼭 맞는 피티드(fitted), 무릎아래가 넓어지는 플레어(flare), 전체적으로 헐렁한 루스(loose), 적당히 맞고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스트레이트(straight)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색상은 데님의 고유한 푸른 색상을 기본색(basic)으로 보고, 이보다 명도가 낮으면 어두운 색(dark), 명도가 높으면 밝은 색(light), 그리고 부분적으로 탈색하여 밝은 색부터 어두운색까지 나타나는 부분발색의 4종류로 분류하였다.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디자인 요소분류를 위해 색상은 멘셀색상환의 10가지 기본색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색조는 PCCS에서 정한 11가지 색조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인접한 2-3개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pale & light(p & lt), bright & vivid(b & v), deep & dark(dp & dk), soft & dull(sf & d), grayish의 5가지 색조영역을 사용하였으며<sup>27)</sup>, 실루엣은 전체적인 맞음새를 기준으로 허리선이 드러나고, 상체가 꼭 맞는 피티드 실루엣과 허리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여유 있는 루스 실루엣으로 설정하였다.

## IV. 결과분석

### 1. 데님의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먼저 서울과 북경 여성들이 계절에 따라 어떤 데

님의류를 가장 많이 입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의류 품목별 착용빈도를 비교하였다(표 1).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적 순서를 감안해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 1) 여름-2004. 7

서울과 북경 모두 여름에 데님의류 품목은 팬츠로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다른 계절에 비해 스커트의 착용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여성들은 팬츠로는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를 주로 착용하였고, 데님 스커트로는 짧은 길이를 선호하였으며, 형태는 다양했다. 북경의 여성들은 매우 짧은 길이의 반바지를 비롯해 무릎, 종아리 중간 길이 등 다양한 길이의 팬츠가 많았으며(그림 1), 스커트는 서울보다 길이가 길어 주로 무릎 바로 위의 길이를 입었다. 다른 계절에 비해 원피스, 베스트, 셔츠, 블라우스 등 데님 품목이 서울보다 다양했다.

#### 2) 가을-2004. 10

가을에도 역시 서울과 북경 여성들 모두 데님 팬츠를 가장 많이 입었다. 서울에서는 북경에 비해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와, 몸에 피트 되는 데님 재킷을 많이 입었다. 북경에서는 서울보다 팬츠의 착용비율이 높았으며, 스커트를 착용한 여성들은 모두 무릎 위 짧은 길이의 스커트를 입었다.

#### 3) 겨울-2005. 1

겨울에도 역시 서울과 북경 모두 데님 팬츠의 착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팬츠와 함께 무릎 위 길이의 스커트(그림 2)와 털로 장식한 데님 재킷을 겹쳐 입는 경우가 많았다. 북경의 여성들은 서울보다 팬츠를 더 많이 입었으며, 털 트리밍한 데님 재킷과 데님코트도 입었으나 스커트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4) 봄-2005. 4

서울과 북경 모두 데님 팬츠의 착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은 북경에 비해 스커트와 몸에 잘 맞는 데님 재킷을 더 많이 착용하였다.

<표 1> 데님의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 )은 %임

품목	계절		여름		가을		겨울		봄		합계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팬츠	47 (62.7)	52 (57.1)	43 (75.4)	71 (89.9)	42 (79.0)	47 (92.0)	46 (80.7)	55 (90.1)	178 (73.5)	225 (79.8)		
스커트	28(37.3)	28(30.8)	9(15.8)	7(8.9)	8(15.4)		5(8.7)	2(3.3)	50(20.7)	37(13.1)		
재킷/점퍼/Vest		3(3.3)	5(8.8)	1(1.2)	3(5.6)	1(2.0)	6(10.6)	4(6.6)	14(5.8)	9(3.2)		
블라우스/셔츠		5(5.5)										5(1.7)
코트/반코트						3(6.0)						3(1.1)
원피스		3(3.3)										3(1.1)
합계	75	91	57	79	53	51	57	61	242	282		

계절을 종합하면, 서울과 북경 여성들은 데님의류로 공통적으로 팬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스커트와 재킷, 점퍼로도 일부 착용하였으나, 그 밖의 품목은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서울은 북경보다 스커트의 착용이 많았으며, 북경에서는 원피스, 셔츠 등 데님웨어 품목이 다양한 것이 차이점이었다..

가을에도 패딩점퍼, 반코트 등 방한이 잘 되는 의복을 많이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기후의 차이와 교통수단이 다른(서울은 버스나 지하철, 북경은 자전거) 생활환경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 2.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하는 상의 품목별 착용빈도 비교

<표 1>과 같이 데님패션은 주로 하의 즉 팬츠와 스커트로 입기 때문에 이들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해서 입는 상의를 품목별로 나누어 착용빈도를 살펴보았다<표 2>.

### 1) 여름-2004. 7

서울과 북경 공통적으로 데님팬츠나 스커트와 함께 티셔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어 이러한 코디네이션이 여름의 가장 일반적인 차림임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은 때로 가디건, 재킷 등을 티셔츠 위에 덧입기도 했으나 북경에서는 이런 코디네이션 차림을 발견할 수 없었다.

### 2) 가을-2004. 10

서울과 북경 모두 점퍼류를 가장 많이 착용했고, 점퍼의 형태도 다양했다. 점퍼 다음으로 서울은 재킷과 함께 코디네이션 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그림 3), 북경은 재킷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신 스웨터류를 많이 입었다(그림 4). 그리고 북경 여성들은

### 3) 겨울-2005. 1

서울, 북경 모두 패딩점퍼를 가장 많이 입었으나, 스타일은 다소 달랐다. 서울의 여성들은 패딩점퍼 다음으로 점퍼를 많이 입었고, 북경은 서울과 달리 코트/반코트를 많이 입었으며, 겨울임에도 스웨터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은 몸에 잘 맞고 짧은 길이의 패딩점퍼를 주로 착용 했으며, 무릎 밑의 길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북경은 서울보다 길이가 긴 패딩점퍼와 코트가 많았다.

### 4) 봄-2005. 4

서울의 여성들이 데님하의와 같이 입는 상의의 품목은 티셔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점퍼이다. 그 외에 가디건을 비롯한 니트류, 재킷, 그리고 트레이닝 점퍼 등을 입었다. 북경은 점퍼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 다음이 티셔츠로 서울과 순서가 바뀌었다. 그 외에 스웨터, 셔츠, 재킷 등을 입었다. 서울, 북경 모두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코디네이션 품목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다.

계절을 종합하면, 서울과 북경 모두 공통적으로 계절별로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로 특정 품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류는 계절에 따라 다소 달라 봄, 가을에는 점퍼, 여름에는 티셔츠,

<표 2> 데넵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품목별 착용 빈도

( )은 %임

품 목	여름		가을		겨울		봄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티셔츠	47(67.1)	59(76.6)	5(7.7)	1(1.3)		3(5.9)	16(27.1)	13(22.8)
블라우스/셔츠	16(22.9)	17(22.1)	3(4.6)	2(2.7)			3(5.1)	6(10.5)
재킷	1(1.4)		15(23.1)	5(6.7)	5(9.6)	3(5.9)	5(8.5)	5(8.8)
점퍼			24(36.9)	25(33.3)	11(21.1)	6(11.8)	13(22.0)	20(35.1)
트레이닝 점퍼	1(1.4)		5(7.7)	5(6.7)	5(9.6)	3(5.9)	6(10.2)	1(1.8)
스커트,원피스			1(1.5)	1(1.3)	4(7.7)	2(3.9)	3(5.1)	2(3.5)
웨터,가디건(니트)	5(7.2)	1(1.3)	7(10.8)	15(20)	4(7.7)	6(11.8)	9(15.2)	8(14)
코트/반코트			5(7.7)	11(14.7)	5(9.6)	11(21.5)	4(6.8)	2(3.5)
패딩 점퍼				10(13.3)	18(34.6)	17(33.3)		
합계	70	77	65	75	52	51	59	57

겨울에는 패딩점퍼를 가장 많이 입었다. 다만 서울은 북경에 비해 가을, 겨울에 재킷을 많이 입어 데넵패션에서도 정장이미지를 전달하며, 북경은 스웨터와 점퍼, 트레이닝 점퍼, 반코트를 많이 입어 캐주얼한 이미지를 전달했다(그림 4, 5 참조). 전반적으로 북경이 코디네이션 품목이 더욱 다양했으며 좀더 두껍고 방한이 잘 되는 의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계절별 데넵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서울과 북경 여성들이 많이 입는 데넵 팬츠와 스커트는 계절에 따라 어떤 디자인특성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 디자인 요소를 색상, 실루엣, 디테일로 나누어 착용빈도를 비교하였다<표 3>.

#### 1) 여름-2004. 7

서울과 북경의 데넵하의는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색상과 실루엣, 디테일의 유·무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냈다. 먼저 서울에서는 기본색과 함께 어두운색을 선호했고,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플레어와 피티드의 순서를 보였고(그림 5),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주로 입었다. 반면, 북경은 기본색상 다음으로 밝은색을 선호하고, 부분발색의 빈도도 높아 하절기에는 밝은 색상을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실루엣은 신체선이 드러나는 피티드실루엣을 스트레이트 보다 선호하였다. 디테일은

있는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보다 많았고, 디테일의 종류로는 자수, 울 풀기, 절개선, 찢기, 덧대기, 프릴 달기(스커트에만 해당)와 같은 다양한 장식기법들이 있었다(그림 6).

#### 2) 가을-2004. 10

서울 여성들은 가을철에 데넵하의로 기본색상을 가장 많이 입었고, 그 다음으로 어두운색을 입었다.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가장 많았으나, 플레어도 선호하고 여름에 비해 헐렁한 루스 실루엣과 피티드 실루엣의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북경의 경우는 기본색과 어두운색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여름과 같이 밝은 색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실루엣은 스트레이트와 함께 피티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과 북경 모두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였으나, 디테일을 사용하는 경우 서울은 주로 포켓이나 프린트를 행하고, 북경은 이들 장식 외에 다른 색을 배색하거나 자수를 놓는 기법을 행하였다.

#### 3) 겨울-2005. 1

서울과 북경의 여성들 모두 계절의 특성에 맞게 어두운색을 가장 많이 입었다. 실루엣은 서울은 스트레이트와 함께 플레어 실루엣의 비중이 높았고, 북경은 피티드 실루엣을 계속적으로 많이 입었다. 그리고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4) 봄-2005. 4

서울은 데님하의의 색상으로 어두운색과 기본색이 거의 대부분이고 밝은 색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루엣에 있어서는 스트레이트와 함께 플레어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 것은 최근 데님패션의 트렌드가 플레어 실루엣 위주인 것을 감안할 때 계절적인 특성보다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7). 다른 계절에 비해 디테일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로 주머니, 절개선, 롤업(roll-up)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북경은 어두운색, 기본색 외에도 밝은 색과 부분 발색도 어느 정도 선호하여 서울과 차이점을 보였다. 실루엣은 다른 계절과 동일하게 스트레이트와 피티드가 많아 서울에 비해 신체선을 드러내는 바지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다(그림 8).

절적인 차이가 있어 북경에서는 여름에 특히 다양한 장식을 행한 데님하의를 많이 입었다.

4.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 디자인 요소 분석

1) 색상, 톤 비교

서울과 북경 양 도시에서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채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 계절별로 색상과 톤을 비교하였다(표 4).

(1) 여름-2004. 7

서울의 여성들은 코디네이션 상의로 흰색,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의 순서로 선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흰색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북경의 경우에

<표 3> 데님하의의 디자인 요소 분석

( )은 %인

요소	계절	여름		가을		겨울		봄		합계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색상	Basic	41(54.6)	28(35)	28(53.9)	28(35.9)	14(33.3)	10(21.3)	20(43.5)	16(29.0)	103(47.9)	82(31.6)
	Light	9(12.0)	21(26.3)	6(11.5)	17(21.8)		5(10.6)		8(14.5)	15(7.0)	51(19.6)
	Dark	20(26.7)	11(13.7)	13(25)	26(33.4)	23(54.8)	28(59.6)	21(45.6)	25(45.5)	77(35.8)	90(34.6)
	부분발색	5(6.7)	20(25.0)	5(9.6)	7(8.9)	5(11.9)	4(8.5)	5(10.9)	6(10.9)	20(9.3)	37(14.2)
실루엣	Straight	36(48)	28(35.0)	24(46.1)	36(46.2)	18(42.9)	25(53.2)	19(41.3)	21(38.2)	97(45.2)	110(42.3)
	Fit	17(22.7)	33(41.3)	7(13.5)	26(33.3)		13(27.7)	4(8.7)	20(36.4)	28(13.0)	92(35.4)
	Loose	4(5.3)	8(10)	9(17.3)	13(16.7)	10(23.8)	5(10.6)	5(10.9)	9(16.4)	28(13.0)	35(13.5)
	Flare	18(24)	11(13.7)	12(23.1)	3(3.8)	14(33.3)	48.5	18(39.1)	5(9.0)	62(28.8)	23(8.8)
디테일	없다	65(86.7)	28(35)	31(59.6)	52(66.7)	33(78.6)	39(83.0)	25(54.3)	40(72.7)	154(71.6)	159(61.1)
	있다	10(13.3)	52(65)	21(40.4)	26(33.3)	9(21.4)	8(17.0)	21(45.7)	15(27.3)	61(28.4)	101(38.9)
합계		75	80	52	78	42	47	46	55	215	260

계절을 종합하면, 서울과 북경 모두 데님팬츠와 스커트 색상으로 기본색과 어두운색을 선호하는 편이나, 서울에 비해 북경의 여성들은 밝은 색상의 데님을 많이 입었으며, 특히 여름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루엣은 서울은 스트레이트와 함께 최근 데님패션 트렌드인 플레어 실루엣을 선호하는 데 비해, 북경은 플레어 대신 신체선을 드러내는 피티드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디테일에서는 서울, 북경 모두 장식이 없는 단순한 데님 형태를 선호하나, 계

는 붉은 색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흰색과 푸른색이었다(그림 9). 톤을 보면 서울은 계절의 특성에 맞게 맑고 깨끗한 p & lt 톤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북경은 붉은 색을 선호함으로써 b & v 톤이 가장 많았다.

(2) 가을-2004. 10

서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 색 등 다양한 색상이 비교적 고른 분





그림 1. 2004.7.북경  
바지 길이가 다양한 여름  
데님룩



그림 2. 2005.1.서울  
짧은 재킷과 데님스커트를  
코디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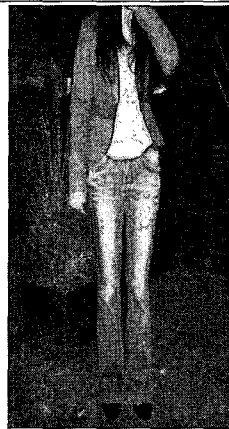


그림 3. 2004.10.서울  
짧은 재킷과 플레어  
실루엣의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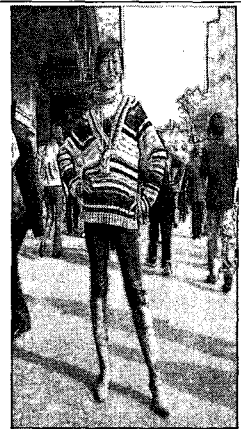


그림 4. 2004.10.북경  
스웨터와 피티드 실루엣의  
데님바지



그림 5. 2004.7.서울  
티셔츠와 플레어 실루엣의  
데님바지 차림



그림 6. 2004.7.북경  
디테일(핏기)을 가미한  
데님바지



그림 7. 2005.4.서울  
셔츠와 가디건, 스트레이트  
실루엣 바지



그림 8. 2005.4.북경  
밝은 색, 피티드 실루  
엣 데님바지



그림 9. 2004. 7. 북경  
붉은 색 티셔츠와 프릴달린  
스커트



그림 10. 2005. 4.서울  
p & lt 톤의 블라우스와 데님  
기본색바지



그림 11. 2004. 10.북경  
여유 있는 실루엣의 스  
웨터와 데님바지 차림



그림 12. 2005. 4. 서울  
짧은 트레이닝 점퍼와  
플레어 실루엣 바지

포를 보였고, 톤에 있어서도 p & lt, b & v, dp & dk, sf & dl 톤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북경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다만 색상의 종류가 좀 더 다양했다는 점과 b & v 톤의 빈도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른 계절에서는 사용이 저조했던 노란색 계열 색상과 sf & dl 톤이 가을에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지, 브라운 등의 갈색 계열 색이 많이 사용되는 계절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3) 겨울-2005. 1

서울, 북경 공통적으로 흰색과 검은 색이 다른 색에 비해 많았고, 붉은색과 노란색(서울), 푸른색(북경)의 상의를 많이 착용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흰색의 비중이 높은 것은 2004/5 F/W의 유행색이 흰색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계절적인 특성이라기보다 유행을 따른 일시적 경향으로 보인다. 서울, 북경 공통적으로 p & lt, b & v, dp & dk 톤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그 중에서도 서울은 p & lt 톤이, 그리고 북경은 dp & dk 와 b & v 톤이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 봄-2005. 4

서울에서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이 같은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북경에서는 붉은 색의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 톤을 보면 서울은 p & lt, b & v 톤이 가장 많고(그림 10), dp & dk와 sf & dl 톤이 같은 비율로 그 뒤를 잇는 등 여러 톤들이 고르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경에서는 b & v 와 dp & dk 톤에 주로 집중되었는데 이는 붉은색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계절을 종합하면, 서울과 북경 모두 데넵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상으로 붉은색, 푸른 색, 흰색, 검은 색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북경의 차이 점은 서울은 계절별로 특정 색상들이 우세하게 나타났던 반면, 북경은 모든 계절에서 붉은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톤에서는 서울과 북경 공통적으로 p & lt, b & v, dp & dk 톤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서울은 맑고 깨끗한 p & lt 톤이 우세하고, 북경에서는 선명하고 화려한 b & v 톤이 모든 계절에서 우세하였다.

<표 4> 데넵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상, 톤 비교

( )은 %임

유형	계절	여름		가을		겨울		봄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색상	R	14(20.0)	21(24.4)	11(18.6)	15(18.3)	7(12.9)	12(18.2)	11(18.6)	20(32.2)
	YR		2(2.3)		1(1.2)	3(5.5)	3(4.6)		2(3.2)
	Y	7(10.0)	8(9.3)	10(17.0)	11(13.4)	7(12.9)	7(10.6)	9(15.2)	5(8.0)
	YG		2(2.3)					2(1.7)	
	G	1(1.4)	2(2.3)	10(17.0)	9(11.0)	5(9.2)	5(7.6)	2(1.7)	6(9.7)
	BG	1(1.4)	1(1.2)		1(1.2)	3(5.5)	1(1.5)		
	B	12(17.1)	14(16.3)	11(18.6)	16(19.5)	5(9.2)	9(13.6)	11(18.6)	8(12.9)
	BP		1(1.2)		2(2.5)			2(1.7)	2(3.2)
	P	1(1.4)	2(2.3)	2(3.4)	2(2.5)	3(5.5)	1(1.5)	3(5.0)	3(4.8)
	RP				1(1.2)				2(3.2)
	W	19(27.2)	15(17.5)	5(8.5)	7(8.5)	9(16.6)	11(16.7)	11(18.6)	5(8.0)
	G	9(12.9)	5(5.8)	2(3.4)	5(6.1)	3(5.5)	4(6.0)	3(5.0)	3(4.8)
BK	6(8.6)	13(15.1)	8(13.5)	12(14.6)	9(16.6)	13(19.7)	5(8.5)	6(9.7)	
합계		57	80	58	79	54	66	59	62
톤	P&L	26(45.6)	22(27.5)	15(25.9)	11(13.9)	17(31.6)	17(25.8)	18(30.6)	12(19.4)
	B&V	11(19.3)	28(35)	12(20.7)	25(30.5)	11(20.5)	21(31.8)	17(28.8)	21(33.9)
	Dp&Dk	11(19.3)	18(22.5)	16(27.6)	21(26.6)	13(24.1)	22(33.3)	10(16.9)	16(25.8)
	S&Dl	3(5.2)	3(3.5)	13(22.4)	19(24.1)	6(11.1)	5(7.6)	10(16.9)	6(9.7)
	Grayish	6(10.6)	9(11.0)	2(3.5)	3(3.9)	7(12.7)	1(1.5)	4(6.8)	7(11.2)

2) 실루엣과 디테일 분석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 실루엣과 디테일의 차이를 알기 위해 상의 품목을 티셔츠/셔츠류와 점퍼/재킷류로 나누어 계절별로 비교하였다(표 5).

(1) 여름-2004. 7

서울과 북경 공통적으로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실루엣은 티셔츠/ 셔츠류에서는 몸에 잘 맞는 피티드 실루엣이 루스한 실루엣보다 많았고, 서울이 북경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점퍼/재킷류에서도 서울은 역시 피티드 실루엣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북경은 두 실루엣의 비율이 같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절기에는 여성들이 노출을 많이 하는데서 비롯하는 것 같다. 디테일에 있어서도 양 도시는 차이를 보여 티셔츠/셔츠류에서는 서울의 경우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는데 비해 북경은 장식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점퍼/재킷류에서는 서울, 북경 모두 디테일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 선호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 가을-2004. 10

서울에서는 티셔츠뿐만 아니라 점퍼/ 재킷류에서도 피티드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으나(그림 3), 북경에서는 대조적으로 헐렁한 루스 실루엣이 강세를 보였다(그림 11). 양 도시 공통적으로 디테일이 거의 없는 깨끗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3) 겨울-2005. 1

겨울이라 티셔츠류는 없었고 점퍼/재킷류에서 서울의 여성들은 다른 계절에 비해 비율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피티드 실루엣의 상의를 많이 입었다. 반면 북경의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루스한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디테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겨울철의 디테일은 주로 점퍼나 재킷, 패딩 점퍼의 칼라와 햄라인, 또는 커프스 부분에 털로 장식한 경우가 많았다.

(4) 봄-2005. 4

서울에서는 티셔츠/셔츠류와 점퍼/재킷류 양 쪽 모두 피티드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으나, 북경에서는 양 쪽 모두 루스한 스타일이 많았다. 디테일 면에서 보면 서울은 티셔츠류의 경우 아무 디테일이 없는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반면 북경에서는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점퍼/재킷류에서는 서울과 북경 공통적으로 디테일이 없는 형태를 선호하였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디테일의 종류는 티셔츠에서는 주로 프린트이고, 점퍼류에서는 트레이닝 점퍼의 선 장식, 스트링, 프린트, 자수 등이었다(그림 12).

계절을 종합하면 데님과 함께 입는 코디네이션 상의의 형태는 서울은 계절과 유형에 관계없이 몸에 잘 맞는 피티드 실루엣이 많았으나, 북경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헐렁한 루스 실루엣이 많았다. 디테일은 공통적으로 여름에는 프린트가 많았고, 겨울에

〈표 5〉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디자인 분석

( )은 %임

요 소	계 절	여름		가을		겨울		봄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서울	북경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	실루엣	Fit	56(83.6)	46(63)	3(37.5)	1(14.3)			18(66.7)	6(33.3)
		Loose	11(16.4)	27(37.0)	5(62.5)	6(85.7)			9(33.3)	12(66.7)
	디테일	없다	33(49.3)	15(20.5)	5(62.5)	5(71.4)			18(66.7)	7(38.8)
		있다	34(50.7)	58(79.5)	3(37.5)	2(28.6)			9(33.3)	11(61.2)
합 계			67	73	8	7			27	18
Jumper Jacket Vest Coat	실루엣	Fit	2(66.7)	2(50.0)	38(66.7)	26(38.2)	29(55.8)	12(23.5)	21(65.7)	14(35.9)
		Loose	1(33.3)	2(50.0)	19(33.3)	42(61.8)	23(44.2)	39(76.5)	11(34.3)	25(64.1)
	디테일	없다	3(100)	4(100)	47(82.5)	55(80.9)	20(38.5)	17(33.3)	17(33.3)	21(53.8)
		있다			10(17.5)	13(19.1)	32(61.5)	34(66.7)	15(46.8)	18(46.2)
합 계			3	4	57	68	52	51	32	39

는 털 장식이 많았으며, 그 외의 계절에는 별다른 디테일이 없는 깨끗한 형태가 많았다.

## V. 결론

같은 동아시아 지역인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젊은 이들의 패션에 대한 기호와 취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 착용모습을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 동안 각 계절의 중간 달을 선정해 사진 촬영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에서의 공통점

1) 계절에 관계없이 데님은 바지로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이 스커트였다.

2)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 품목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나 가장 많이 착용하는 품목은 서울과 북경이 같다. 데님의 코디네이션으로 봄에는 주로 티셔츠와 점퍼, 여름에는 티셔츠, 가을에는 점퍼, 겨울에는 패딩점퍼를 가장 많이 입었다.

3) 가장 선호하는 데님바지 종류는 기본색상 즉 정통 블루진 색상과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 5개 포켓이 있는 기본형이었다.

4) 데님패션은 계절별로 여러 품목이 나타났으나, 여름에는 두 도시 모두 데님 하의와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5)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색상은 계절을 종합하면 두 도시 모두 흰색,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색조는 pale & light, bright & vivid, deep & dark 색조를 중심으로 모든 색조가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2.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님패션에서의 차이점

1) 서울은 북경에 비해 데님스커트 선호도가 높고 계절별 구별이 없는 편이다.

서울은 여름은 물론 가을, 겨울 동절기에도 데님스커트를 입는 비율이 북경에 비해 높았으며 디자인도 달라서, 서울은 주로 짧은 데님스커트를 좋아

하는데 비해 북경의 데님스커트는 길이와 실루엣이 다양했다.

2) 코디네이션에 있어 서울은 계절별로 소수의 특정 형태의 데님이 유행하였는데, 북경에 비해 그 형태가 다양하였다. 이것은 서울은 북경에 비해 데님이 유행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은 대중들의 패션 트렌드 정보수집이 용이하여 데님 품목에도 트렌드를 인식하여 특정 형태를 우세하게 착용하고, 북경은 아직 트렌드 정보수집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트렌드 수용보다는 각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 데님하의의 품목에 있어 서울은 날씬해 보이고 단순한 디자인을, 북경은 개성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은 어두운 색상, 무릎 아래로 넓어지는 플레어(flare)디자인과 디테일 없는 디자인을 북경에 비해 선호하고, 북경은 부분발색이나 밝은 색상, 몸에 맞는 실루엣, 장식 있는 디자인을 서울에 비해 선호하여 두 도시 간에 취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경은 청바지에 자수, 올 풀기, 찢기, 프린트, 포켓달기 등 여러 가지 장식 있는 디자인이 많아 전체적으로 복잡한 느낌을 전달하였다.

4) 데님하의와 코디네이션 하는 상의의 품목 또한 서울과 북경이 달랐다. 서울은 계절에 관계없이 길이가 짧고 몸에 잘 맞는 피티드(fitted) 실루엣의 상의를 주로 착용하는데 비해 북경은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서 길이가 길고 여유 있는 루스(loose) 실루엣을 주로 착용하였다. 서울은 디테일이 거의 없는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북경은 프린트, 자수, 프릴, 다른 천 덧대기 등 장식이 많은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5) 데님과 코디네이션 하는 옷의 색채는 계절에 따라 양 도시가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며, 민족적 정서가 색채에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 비해 북경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색상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계절에 관계없이 북경은 빨강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서울은 흰색의 사용이 높고, 가을과 겨울에는 갈색 계열의 비중이 높았다. 색조에서도 서울은 모든 계절에서 맑고 깨끗한 pale & light 색조가 우세한 반

면, 북경은 선명하고 강렬한 bright & vivid 색조가 가장 우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예로부터 한국은 흰색을, 중국은 붉은색을 선호해온 두 지역의 고유한 민족적 색채정서가 현대의 데넵패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6) 데넵패션 연출을 통해 추구하는 이미지도 다르다. 서울은 몸에 적당히 맞으면서 아래가 넓어지는 단순한 디자인의 데넵하의와 길이가 짧고 몸에 잘 맞는 상의를 코디네이션 하여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며 키가 커 보이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 반면 북경은 대체로 데넵하의의 길이와 모양이 훨씬 다양하고 장식이 많으며 길이가 비교적 길고 몸에 여유 있게 맞는 헐렁한 스타일의 상의와 함께 입어 전체적으로 활동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와 같이 서울과 북경 여성들의 데넵패션은 계절에 따라 데넵 품목 자체의 형태와 함께 코디네이션 하는 의복의 형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착용되었고, 이러한 양식을 통해 두 도시 패션기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공통점은 데넵이라는 의복자체의 특성과 같은 연령,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착용자의 공통점으로 인해 형성되고, 차이점은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양식, 패션 트렌드 수용정도, 의복에 대한 인식에 따라 비롯된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전체적 이미지로 볼 때 서울의 여성들이 데넵패션에 있어서 정장풍의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과는 달리 북경 여성들은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스타일로 주로 입어 데넵양식에 기호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북경의 경우 서울에 비해 취업여성들의 비율이 높고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생활환경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서울과 북경의 시내중심 거리에서 발견되는 젊은 여성들의 데넵패션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확대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Joseph M. L. (1966). *Introductory textile science*. New York: Holt, Rinehan & Winston. p. 57.
- 2) 패션 큰 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 큰 사전. 교문사, 531-532.
- 3)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 ident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69.
- 4) 위의 책, p. 96.
- 5) 김민정 (2001). 진즈패션(Jeans Fashion)의 상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6) 위의 글, p. 11.
- 7) 홍병숙 (2004). 북경 백화점의 패션 브랜드 현황분석. 한중패션산학연구회지, 한중패션 문화 교류 세미나 - 중국 패션시장의 실태 및 사례연구, pp. 1-12.
- 8) 최경희 (2004). 중국 직장여성 스트리트 패션 연구. 한중패션산학연구회지, 한중패션 문화 교류 세미나 - 중국 패션시장의 실태 및 사례연구, p. 16.
- 9) 송창현 (2002. 11. 25). *kbsworld.net*
- 10) 최경희 (2004). 위의 글, pp. 17-18.
- 11) 김경애 (2000). 평가자의 연령과 성별이 작품의 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10), pp. 133-142.
- 12) 김경애·이미식·김정희 (2003). 셀룰라제 처리된 데넵 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제 3보), 한국의류학회지, 27(1), pp. 40-48.
- 13) 이미식·홍문경·권계화·전정애 (2001). 청바지의 소재별 쾌적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1196-1199.
- 14) 이민경·한명숙 (2002). 현대 데넵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10(4).
- 15) 이효진 (2004). 데넵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복식, 54(8), pp. 75-86.
- 16) 김선희·임숙자 (1996). 의복관여에 따른 광고에 대한 태도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pp. 298-310.
- 17) 김미영·이충연 (2000). 1990년대 Jean 광고의 변화. 복식문화연구, 10(4).
- 18) 전경숙·김재옥 (1996). 미국산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의 비교문화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0(3).
- 19) 이명희 (1997). 셔츠 및 청바지의 상표선택과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pp. 263-275.
- 20) 이정숙·성수광 (2004).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동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6(3).
- 21) 박혜정·신은주·정혜영 (2004). 대학생의 의류 쇼핑성향과 청바지 구매 시 전포선택. 한국의류학회지, 28(5).
- 22) 이정숙·성수광 (2004). 위의 책, pp. 336-340.
- 23) 위의 책, pp. 336-340.
- 24) 박혜정·신은주·정혜영 (2004). 위의 책, pp. 547-558.
- 25) 김미영·이충연 (2000). 위의 책, pp. 461-472.
- 26) 이민경·한명숙 (2002). 위의 책, pp. 461-472.
- 27) 박필제·백숙자 (1999). 컬러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형실출판사.